

대학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던 '아시아공동체론'

문화콘텐츠학과

유지연

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한 수업에 대해 말하기 앞서 사담을 조금 풀어놓고자 한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는 의미 있는 수업을 듣고 싶었다. 수강 신청을 앞두고 우연히 아시아공동체론에 관한 학교 공지를 보게 되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도 주다니 얼마나 금상첨화인가. 여름 방학 때 외교수업을 들으며 나를 알게 시간을 보냈던 지라 과한 자신감이 있었다. 들뜬 마음을 품은 채 개강날이 되었다. 강의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였다. 연강 수업이기에 하루만 집중하면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때 넓은 강의실에 꽂 찬 학생들을 보며 살짝 놀랐지만 오랜만에 듣는 대형 강의라 감회가 새로웠다.

첫 강의의 주제는 '아시아 개념 대한 범위와 역사'였다. 아주대학교 이왕휘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으셨다. 유럽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가 스스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작지만 네덜란드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다. 그동안 그냥 받아들이던 '아시아'란 개념이 얼마나 복잡하고 합의되기 어려운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정부가 쓰는 '동북아시아'란 용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지 알 수 있었다.

모든 강의를 다 일일이 적을 수 없어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으로의 국제이주'와 '중앙아시아와 아시아공동체'이다. 전자는 뉴질랜드 이민자를 연구하여 이민자들이 어떻게 본국과 연결을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90년대 많은 한국인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유와 그것이 가능했던 국제적 정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국과 사회적 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아직 초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 지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와 아시아공동체'는 연해주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현황에 대한 강연이었다.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이고, 특히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를 무릅쓰고 직접 연해주에 있는 노동 현장에 가서 조사하신 교수님께서서는 대단하셨다. 강의 내용 중 인상적인 부분은 조선족에 관한 시선이었다. 온라인 상에서만 봐도 조선족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조선족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와 한국의 문화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서는 조선족이 북한인들에게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보이셨다. 조선족에 대해 생각을 바꿀 수 있던 기회였다.

종합적으로 모든 강연을 듣고 나면 아시아에 대한 개념을 합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시아 내 나라들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독자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다 보니 간극을 좁히기 힘든 부분도 발견한다. 심지어 현재 정부 형태도 다 다르다. 그렇기에 유럽처럼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수월하지 않다. 그렇지만 분명 아시아 나라끼리 느끼는 문화적 감성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아시아 국가들끼리 거리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 합의점을 발견할 수 있을 테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아쉽기만 하다.

한편,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모든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현대를 다루는 수업

이다 보니 전문가여도 변화하는 세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수업 내용과 다른 부분도 이 후에 종종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양은 학생의 '비판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라 생각한다. 강연이 완벽하다 느낄 수 있어도 내용이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 아시아공동체론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강의 내용이 많다. 처음에는 거부감과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강연자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 이 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발상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물론 시험을 위해서는 유인물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야 하지만 수용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자 판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업 외적인 부분에는 사소한 투정이 있다. 대형 강의라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석과 질의 응답에 관해서이다. 출석은 전자 출결을 기본으로 하되, 불시에 다시 출석을 한다. 이에 불편한 점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출석을 부를 때이다. 쉬는 시간이 되어 급하게 나갔다 들어오면 출석이 지나가 있어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약속한 쉬는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이나 수업이 일찍 끝난 경우 그 때 출석을 확인한다면 불편함이 좀 더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학생의 질문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았으면 한다. 질문이 평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서이다. 그래서 열정적인 강의와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마음은 감사하지만, 강의 시간을 90-100분 내외로 한정하고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바람이 있다. 질문이 많은 만큼 아시아공동체론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는 것이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한 학기 동안 매주 다른 주제로 이루어진 수업은 이렇게 종료되었다. 어떤 일이든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뿌듯함이 공존한다. 아시아공동체론도 마찬가지 이다. 때로는 어려운 내용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몰입되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다. 배우면서 공공 골머리를 앓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에 무릎을 탁 치기도 했다. 그만큼 아시아공동체론을 공부하며 고생한 만큼 얻는 지식도 많았다. 아시아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현 정세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수업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